대행 스님

깔축없이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항상 같이 돌아가지만 오늘 첫째 일요일날 또 한자리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 앞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안 깎고도 빡빡, 아주 단정히 깎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있고 마음내고 몸이 움죽거리는 이 삼위일체가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대승 불교니 소승 불교니 선 불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름입니다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뜻을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잘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주인공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고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죠. 따지고 보면, 뒤집어서 놓고 보면 봄동산에 한 물건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휙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휙 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나투면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고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모두 절에 다녀도 똑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부친다든지, 또는 백 배를 하든지 천 배를 하든지 삼천 배를 하든지 또 일 배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죽거려지는 거니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죄업이 있느니 업보가 많으니 이런 데에 걸리지 말란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팔자가 이렇느니 운명이 이렇느니 이러시는데, 이런 데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식을 씌워 주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씌워 주기 이전에 벗겨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벗어진다면 여러분도 벗어질 거고 내가 씌워졌다면 여러분도 씌워질 겁니다. 길잡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일체 만물만생 일체제불이 다 배가 부르듯이, 내 한생각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전부 촉촉하게 배를 불리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 새달에, 훗달에 어떠니저떠니, 내년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 소립니다. 말로 따져서 하자면 '무여(無如)'라는 것도 있고, '일여(一如)'라는 것도 있고, '여여(如如)'라는 것도 있고, '즉여(卽如)'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을 바로 '사구공법(四句空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린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움죽거리고 있는데, 끝간 데 없는 이 평등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 끄달려서 속고 삽니다. 속아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간 데 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 잘 들으세요. 팔만대장경이 글자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병풍 둘러치듯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의 근본이자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즉행이며 즉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즉설이 돼야 법으로 행해지게 되죠. 한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해서 한데 떨어지면 위로는 부처님께 누가 되고 또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에게 햇빛을 줄 수가 없어요. 빛, 햇빛! 묵은 빛을 갚지 못하고 햇빛을 줄 수 없으니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소리지요.

모두들 조상 따로 두고 부처님 따로 두고 그러는데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개구리 어머니가 새끼 개구리 둘을 업고 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져서 뒤집혔는데 엄마를 따라가려고 바둥바둥하더라고요. 어미 개구리는 거기 멈춰서서 사람의 어머니처럼 "빨리빨리, 얼른 오너라." 하고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자식이 어머니를 잃고 애원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이 부처란 얘기예요. 마음! 마음이 있다면 행이 나오니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유생 무생이 다 그렇단 얘기죠. 사생이 다 그렇다 이 소립니다. 태로 낳는 거라든가 알로 낳는 거라든가, 화해서 낳는 거라든가 질척질척한 데서 낳는 거라든가, 사생이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해골 무더기에다 절을 했다는 얘기,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사생자부이신데 어찌 해골더미에다 절을 하십니까?" 하는 얘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흙과 물은 어머니로 비유하고 바람과 태양은 아버지로 비유했어요. 흙이라는 데서, 물이라는 데서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진화되면서,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인간까지, 100%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는 거냐. 말로 이론으로는 전부 그럴듯하게 '그냥 그렇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행이 되질 않아요. 마음으로 감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기로부터 우주 근본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 내 어머니가 둘이 아니라는 뜻은, 보세요. 잘 펼쳐 놓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새끼를 낳아 기르다가 일에 지쳐 쓰러져서 죽어 가면서 그 자식을 다 기르지 못했다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어미소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어머니만, 소의 어미만 그런 게 아니라 코끼리 어미도 그렇고 코끼리 자식도 어미를 찾는 그 가긍한 마음이 있고,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럴지언댄 어찌 그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한번 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몰라서, 소극적으로 요 개별적인 나, 요 내 가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이 아닌 뜻을 아신다면 너 나가 없이 찰나찰나 나투실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마따나 삼십이응신으로 나투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내 어머니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입니다. 벌을 봐도 그렇고 개미를 봐도 그렇고요. 개미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먹을 게 생기면 어딘가 말없이 부지런히 갑니다. 부지런히 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없이 말을 전달해 가지고 우우 모이게끔 해 놓거든요. 인간도 어떠한 이익이 있으면 내 식구를 전부 몰고 가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차에 가득 싣고 왔으면 식구들이 몽땅 가서 모두 들고 들어오듯이, 개미도 그렇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불법을 믿는다고 해서 밥이나 떡이나 해 놓고 빌고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지장 따로 있고 칠성 따로 있고 독성 따로 있고 용신 따로 있고 지신 따로 있고 조왕 따로 있고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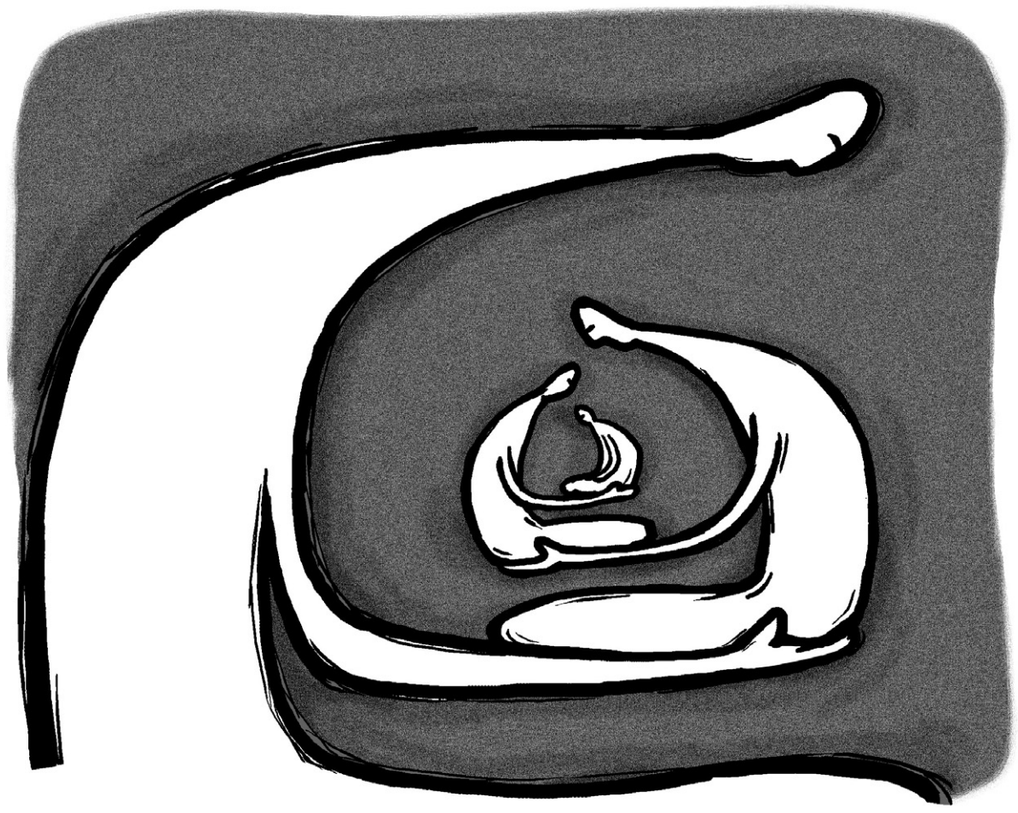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제1회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학인 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염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홍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청(짓소리), 39위, 복청게, 고혼청, 헌좌게, 진령게, 칠언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범패 –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게, 다게, 법고춤, 호적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재, 수륙재,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청, 공덕게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사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효 010-4466-3575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참회진언 특허 성불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붓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타올도매/인터넷 웹하드(데이콤, www.webhard.co.kr)에서 보세요
(아이디 hce4936 비밀번호 6584).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울 게 없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목신 따로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소견입니다.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북하면 삼십이상의 구족함과 삼십이응신의 구족함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고 들이는 데 조금도 걸림 없는 구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부처님은 항상 나투면서, 사람에게만 나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도 나투어요. 구더기를 건지려면 구더기가 돼 줘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같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렇게 찰나찰나 나툴 때에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가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관세음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 됐을 때 부처님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지장이라는 건 마음 깊은 속에 보배와 같은 것이 흙 속에 묻혔다고 해서 바로 지장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니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죽거리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둘이 아닐지언댄 승보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다니는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껍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죠.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도 있는지를 몰랐고 이 세상도 있는지를 몰랐고 상대도 있는지를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죽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껍데기가 움죽거리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죽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죠. 마음내는 것 따로 있고 움죽거리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내기 이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죄를 사해 주지 않겠지. 여기 칠성님 전에 놓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의 명이 길지 않겠지. 약사보살한테 놓지 않으면 병이 안 낫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고정됨도 없을 뿐더러 고정관념도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있는가. 모두가 공했어요. 공한 것은 없어서 공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린애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늙었을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꽉 찼기 때문에, 한 물건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효 대사는 한 물건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 놓으니까 낙엽을 일부러 갖다가 뿌려 놓으면서, 잘못 쓸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가진다면 항상 바둥거리고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놓지를 못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신발 벗어 놓고 들어오듯 그렇게 착을 두지 말고 놓아라 이겁니다. 본래 놓고 가는 거니까, 본래 제자리걸음으로 끝간 데 없이 놓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항상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 하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이건 배고 이건 돛대고 이건 사공이고 이건 물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교리에 관한 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마르면 직접 그냥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불제자로서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실천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목마른데 물을 보고도 못 먹는다면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더라.' 하고 보고 듣고 해도 자유스럽게 떠 먹지 못하고 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묵은 빚을 갚으며 햇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놓고 가거라.
본래 놓고 가는 거다.
고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너라는 걸 세울 수 없으니
아주 강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질 때 내 몸뚱이 죽고 사는 거를
다 공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팽개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될 것입니다.
더 먹고 더 살면 뭘 하고
덜 먹고 빨리 죽으면 뭘 합니까.

그러나 짊어지고 나온 것이, 즉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콩씨 얘기 했듯이 말입니다. 작년 콩씨를 심었더니 올해 콩나무로 화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 콩나무에 콩이 열렸지요. 작년 콩씨는 화했잖아요. 한 찰나에 화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어요. 무조건 없는 거라고요.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없어요. 현재는 공해 버렸다 이 소리에요. 공해 버렸다. 그러니 짊어진 게 없어요. 찰나찰나 놓고 가는데 무슨 짊어진 게 있느냐 이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된 행이 있어요? 근데 왜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져요? 하나도 짊어진 것이 없는데 일부러 의식적으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짊어졌다고 해 놓고 짊어짐을 받는 거죠. 깔축없이 자기 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한 게 없습니까? 허허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계율을 알고 교양을 알고 상식을 알고, 그리고 좋은 거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계율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250계나 380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을 필요도 없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이름지어 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시시각각으로 보고 듣고 살고 움죽거리는데 인간이라면 그대로 질서를 지키고…. 계율이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은 그렇게 지켜야 하지 않나요? 그거는 인간으로 나왔다면 다 아는 바죠. 그러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뛰어넘을 것이 없이 뛰어넘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죄가 있네 없네, 과거의 업보가 있네 없네, 팔자가 있네 없네, 조상의 탓이네 아니네, 동쪽이 무슨 뭐 삼살방이 들었네, 올해 삼살방이 들어서 집을 못 짓네,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네 하고 잠재의식 속에 아주 구태의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미신짓을 하니까 미신이 되죠, 네? 미신짓을 하지 않는데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도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날이면 그게 바로 좋은 날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이고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막아 놓고 막힘을 받고, 구덩이를 파 놓고 구덩이 속에 빠져서 울고 그럽니까. 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이 아프다' 할 때는 '허허, 주인공! 병을 나게 한 것도 네놈이니 낫게 할 수 있는 놈도 바로 네놈이 아닌가!' 하고 한번 뒤집어 보라고요. 그렇게 멋진 도리와 그 멋진 불법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께도 그렇고, 선조들이 그렇게 법을 구하려고 애쓰면서 쓰러져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생각도 없어요? 또 한편 우리가 물을 쓰지 못하면 죽는데 물한테 고마운 줄 몰라요? 불도 고맙고 흙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의 근거지가 되는 거름이에요. 우리들 생활의 거름이고요. 그러니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었을 때는 자기가 여기 법당에 왔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없어요.

나는 이날까지 잘해 달라고, 내 생명을 살려 달라고 해 본 예가, 손을 꼽고 타의에 빌어 본 예가 한 번도 없어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것이죠. 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긴 거구요. 그러니 만약에 공에 빠진다면 공의 노예가 될 것이고 물질에 빠진다면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과학으로써 첨단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음 없이 과학을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발전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말려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물질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마음으로, 정신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물질에 말려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부처님 몸뚱이, 저 모습에 말려들라고 그러신 게 아니죠. "너희가 네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네 마음을 안다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나툼 또한 둘이 아니니라." 나툼이 둘이 아닐지언댄 그걸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열반을 못했는데 그냥 죽는다고 열반인가요? 살아생전에 깨닫지 못한다면 열반이 아니다 이 소리죠.

우리가 어린애를, 핏덩어리를 낳아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해요. 너와 나와 둘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와 나와 둘이 아니게 천차만별의 그 뜻에 응하고 응해 주는 그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마땅히 세 번 아닌 세 번을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놓고 가거라. 본래 놓고 가는 거다. 고정되지 않아서 그대로 너라는 걸 세울 수 없으니 아주 강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것을 가질 때에 내 몸뚱이 죽고 사는 거를 다 공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팽개칠 수 있는, 강렬하게 팽개칠 수 있는 아마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될 거다 이겁니다. 더 먹고 더 살면 뭘 하고 덜 먹고 빨리 죽으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천차만별로…, 애들은 애들대로 점점 가을이 다가올 겁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것이 위로는 푸른 잎을 쳐다보고 아래로는 가랑잎을 밟으면서 우린 지금 걷고 있다 이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평발이기 때문입니다, 평발. 발이 납작해서 평발이라고 한 게 아니라 어느 거 하나 빼놓지 않고 전체를 한발로 디뎠기 때문에 평발이다 이 소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3월 4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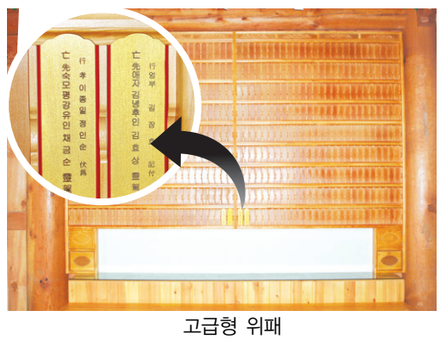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